

2014 신년맞이 경전 속 덕담

새해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자

오늘도 이미 지나 그에 따라 목숨이 줄어든다. 마치 웅달샘의 물고기와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의 빠르기는 번개와 같으니 사람의 목숨 빠르기도 그러하다.

-출요경-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구나.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본생경-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 온 들토끼처럼, 뱅글뱅글 돈다. 속박과 집착에 얽매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법구경-

장인이 도끼자루를 꾸준히 잡으면, 조금씩 점점 닳아 손가락 자국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닳고 익히면, 오늘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지고 내일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진다고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잡아함경-



활처럼 구부러지고 대나무처럼 유연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

-본생담-

늪으면 가을 나뭇잎 같으니 어찌 누추한 처지로 푸르름을 넘볼 것인가. 목숨은 죽음을 향해 내달리니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법구경-

어리석은 사람은 성자와 한평생을 함께 지낼지라도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한다. 마치 손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법구경-

재물을 쌓되 적은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줄거나 없어지지 않으리라. 음식에 만족할 줄 알고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며 미리 모으고 쌓아 그것으로 궁핍할 때를 준비하라.

-장아함경-

세상에 있는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는 탐욕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는 성냄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는 어리석음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를 폭력적인 마음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니까야-



마도성공(馬到成功)

다사다난했던 2013 계사년 뱀띠해가 저물어가고 2014년 갑오년 말띠해가 다가옵니다.

청마도의 주재인 '마도성공'은 '빠른 말처럼 성공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역동성, 성공, 부, 건강, 강인함 등을 뜻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갑오년에는 역동적으로 활기참과 동시에 가내 두루 편안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동림사 주지 성타스님 작

진관사 출토 유물이 국가 소유라고?

조계종 문화부 기자회견서 성토... 결정 철회 촉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진관사 출토 성보 문화재를 국가 귀속으로 결정하는데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9일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진행된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 판정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는 11월 19일과 12월 16일 '진관사 인근 발굴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으며, 암수막새 51점, 기와류 121점, 자기류 84점, 금동불입상 2점과 잡상, 비석편, 용두 등 14점을 포함해 총 272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현재는 진관사 출토 성보 문화재는 발굴 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에 수장돼 있다.

매장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발굴 문화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대해 헤일 스님은 "진관사 경내 진관사 소유토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진관사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이 12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진관사 출토 유물 국가 귀속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문화재위, 9일 16일 '국가귀속' 결정 사항 귀속의 이전 판례에도 '상치' 조계종 "정체성 부정한 것과 같아"

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드러내는 귀중한 성보이며 진관사 소유의 소중한 불교 성보"라며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이해나 진관사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인식 없이 진관사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헤일 스님은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은 소유권 판정 심의가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부의해 이 사태를 조래하게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암사, 월정사 판례에서 드러난 사법적 결정과 상치되며, 문화재청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익한 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난 4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부인사, 비로사, 인각사, 심곡사 출토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헤일 스님은 "문화재 전문성은 인정하나 소유권 판단은 법적인 전문성이 수반돼야 소유권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문화재위원회의 졸속하고 부당한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진관사 성보의 소유권을 조속히 확인하고 문화재 소유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올바른 법적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9일 월정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진행된 출토 문화재 소유권 소송에서 월정사 '승소'를 판결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제8대 포교사단 '광명회 호' 출범

구립 24일...사상 최초 여성단장



재가불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 단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광명회 신임 포교사단장은 구립 24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제8대 포교사단장으로 임명됐다.

포교사단 역사 최초의 여성단장인 광명회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호라는 큰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도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고 가야 할 5000여 포교사들"이라며 포교사들의 위상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강조했다.

광 단장은 또 "포교사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한국 불교 포교 현장 곳곳에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명애를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 여기겠다"고 말했다.

광 단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불교 포교의 최일선인 포교사단을 이끈다. 노덕현 기자

불기2558년 단기4347년 甲午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총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부총재 : 고명 대선사, 부총재 : 법해 대선사

회장 : 덕산 연화

부회장 : 법성, 월암, 소운, 성관, 자운

- 원로위원 : 은곡 범진, 운영위원장 : 법봉, 문화원장 : 헤월, 연수원장 : 도현, 지도위원장 : 체의, 호진 혜승, 도선 오연, 운영부위원장 : 현덕, 교육원장 : 청운, 홍보위원장 : 지성

- 기획실장 : 헤일, 총무 : 혜성, 운영위원 : 해문 약산, 해암 관연, 반야, 청화, 김덕환, 신태귀, 명철, 최기용, 이영일, 이강우, 법사위원회 부위원장 : 명화, 예술국장 : 목련화, 사서실장 : 무영

참여종단 : 대한불교 동산조계종, 대한호국불교 조계종, (사)대선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대각조계종,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사)대한호국불교 원웅종

대한불교 법상종, 해동호국불교 조계종,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육조선원, (사)한국불교 극락조계종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호국불교 선미륵종, (사)한국불교 달마종 (가,나,다 순)

참여단체 : 나라사랑국민연합, 한국민속예술연구원

세계족심도협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세계평화유지군원참전유공자회, 한국풍수지리학회

세계예술교류협회, 911재난방송 (가,나,다 순)

전국의용소방연합회